

[사회]

건물 99% 지진 '무방비'

광주·전남 터널 17곳 내진설계 전혀 안돼 교량 등 리히터 5 이상엔 심각한 피해 우려

광주·전남의 주요 교량과 건물은 어느 정도의 지진까지 버틸 수 있을까? 광주·전남 건물의 99%는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 2005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건물 69만4천487개 중 내진(耐震) 설계가 돼 있는 건물은 0.8%(광주 2.2%·전남 0.5%)인 5천714개에 불과했다.

특히 단독주택은 49만3천631개 중 단 7개만 내진 설계가 돼 있었고 ▲공장 0.4%(1만1천176개 중 41개) ▲근린생활시설 0.8%(7만3천459개 중

42곳이나 됐다. 내진 설계가 없는 건물은 리히터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목적댐인 섬진강댐과 주암댐은 일 반 건물이나 교량보다는 지진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1년 수자원공사는 국감에서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내진 기준이 각각 5.4와 6.0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건교부의 내진 기준인 6.1에 미달해 지적을 받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장교인 진도대교(길이 484m·너비 11.7m·주탑 69m)는 리히터 규모 6.5까지 버틸 수 있다. 제2진도대교(길이 484m, 폭 12.55m)는 리히터 규모 6.0까지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으로 설계돼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흑산도 인근 활성단층 가능성

광주·전남 지진 중 43% 규모도 커

광주·전남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980년대 광주·전남의 지진 발생 건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90년대 들어서 17건으로 4.2배 증가했다. 지난 2002년 한해에는 13건, 2006년에는 5건이 관측됐다. 2000년 이후 총 발생 건수는 42건이다.

지난 1984년 5월4일 금성(현 나주시)~함평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리히터 규모 2.5)부터 지난해 11월26일 고흥 남동쪽 38km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2.4)까지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랐다. 보통지진(규모 4.0 이상)도 4건이나 있었으며 이중 1994년 7월 26일과 2003년 3월23일 발생한

'홍도 해역 지진' 때는 구체적인 피해가 접수되기도 했다. 당시 발생했던 두 지진은 모두 규모가 4.9로 서울·부산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특히 신안 홍도와 흑산도 인근에서는 2000년대 들어 발생한 광주·전남의 지진 중 42.9%인 18건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역이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인 활성단층(活性斷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에는 광주·나주·목포·해남·완도·장흥·고흥·순천·여수·흑산도 등의 기상관측소에 지진계가 설치돼 있으며, 진동이 감지되면 곧바로 기상청 지질감시과에 통보된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상쾌한 한주의 시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1월 22일
(음 12월 4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조금	-2~8℃
목포	구름조금	-1~7℃
여수	맑음	2~9℃
순천	구름조금	0~9℃
해남	맑음	-5~10℃
완도	구름조금	-4~9℃
장흥	맑음	-3~10℃
고흥	맑음	-5~10℃
진도	구름조금	-3~7℃
곡성	구름조금	0~9℃
영광	구름조금	-4~8℃
보성	구름조금	-7~9℃
담양	구름조금	-4~7℃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4:07 썰물 < 09:26
여수 밀물 < 11:25 썰물 < 04:54

▲해돋이 07:38 ▲해질 17:50 ▲달출 09:39 ▲달몰 21:21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날씨						
최저/최고	-2/9	-1/7	-2/6	-2/2	-3/1	-4/1

조선시대 전라도 565건이나

역사속의 지진 기록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지진 발생 횟수는 서기 원년부터 1900년대 초까지 총 1천890여 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엔 전라도에서의 지진 관련 기록(지진 & 전라도)이 565건 나온다.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태종 12년(1412) 2월1일자 기록이다.

<전라도에서 지진하니, 서문관에서 해괴계를 행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천재지변을 만나면 마땅히 인사(人事)를 닦으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제사를 행할 것이 없다."(>全羅道地震 書雲觀請行解怪祭, 上曰: "古人有言曰: '遇天災地怪, 當修人事' 不必行祭")

이어 세종 4년(1422) 2월9일엔 영광(全羅道靈光郡地震), 7월22일엔 동복과 화순(全羅道同福 和順地震)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록돼 있다.

학계에선 이런 기록으로 미루어 조선시대를 가장 활발한 지진 활동기로 보고 있다.

지질학자들은 환태평양대 중심인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우리나라 활성단층에 에너지를 제공, 발생 횟수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또 서울에서 2010년 안에 지진 규모 6이 넘는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57%가 넘는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규모(Richter scale)=미국의 지진학자 C.F.리히터가 지난 1935년 첫 도입한 개념. 지진 자체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주기·진앙 등을 계산해서 산출한다. 규모 1.0의 지진은 폭약(TNT) 60t급의 파괴력을 가지며, 규모 1이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가 30배씩 늘어난다. 강릉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은 TNT 4천만급이다.



봄 같은 휴일... 놀이공원 북적.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계속되면서 휴일인 21일 광주시 북구 생용동 금호패밀리랜드에는 평소보다 3천 명 많은 8천여 명의 인파(人波)가 몰렸다. 이날 광주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6.7도 높은 11.3도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목포대 기성회비 12% 인상 합의

광주·전남 첫 타결...타 대학에 영향 미칠 듯

목포대가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중 처음으로 등록금 협상을 타결, 올해 기성회비를 지난해 대비 1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 7.45%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다른 대학들의 올 기성회비 인상률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목포대에 따르면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8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기성회비를 지난해보다 12%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당초 의견을 좁히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으나, 최근 학생 복지 향상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대 관계자는 "등록금 협상 타결된 만큼 올해 취업 및 국제 교류 활성화 등 전략 사업을 강화하고 교육환경 개선·연구 경쟁력 강화·정보화 기반 구축 등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해 대학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주요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입학금과 수업료 5% 인상안과 올 대학 자체 사업계획에 맞춰 기성회비 인상률을 얼마로 정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학생 수 감소로 수입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 자연 증가분 등에 따른 지출은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예산을 동결했을 때 기성회비 11%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와 함께 기성회비 인상률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경찰 총경급 간부 342명 인사

경찰청은 22일자로 백혜웅 전남청 생활안전과장을 전남청 수사과장으로, 오진선 광양서장을 광주 북부서장으로 발령하는 등 총경급 간부 3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20면>

이번 인사에서 전남청 정보과장은 황호선 여수서장이, 홍보담당관에는 이상기 본청 홍보 2계장이, 생활안전과장에는 김두만 고흥서장이 각각 임명됐다.

윤재문 전남청 정보과장은 광주 북부서장으로, 정인근 전남청 수사과장은 목포서장으로, 이윤 강진서장은 광주 남부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오는 7월 광주청 개청을 앞두고 꾸려진 개청준비단에는 전승범 광주 동부서장과 교육 중인 김재병 총경, 율해 총경 대열에 합류한 양성진 전남청 정보 2계장·김수용 전남청 수사 2계장 등 모두 7명이 포함됐다.

전남청 홍보담당관으로 일해온 박석일 총경(수후)은 제주 생활안전과장으로 이동하고 강인철 무안서장과 허경렬 담양서장도 각각 본청 법무과장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로 근무지를 옮겼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성매매 남성 74%가 30~40대 기혼자

광주·전남 작년 831명 적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 10명 중 7명은 30~40대의 기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성매매로 인해 적발된 사람은 모두 831명이었다.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성매매로 적발된 남성은 492명. 이 중 30~40대 기혼자가 365명으로 74.2%를 차지했다. 20대 이하는 94명

으로 19.1%였다. '성매매는 미혼 남성의 성적욕구 해소를 위한 필요악'이라는 일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직장인이 266명(54%)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및 기사가 160명(32.6%), 자영업자가 66명(13.4%)이었다.

경찰 단속결과 성매매가 최근 들어서는 비용 부담이 적은 안마 시설소와 마사지업소 등 신·변종 업소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06년 대형 에어컨 판매량 1위 기업, 2006년 "올해 에어컨" 판매량 1위 기업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기를 1대로

최고의 신기술

1. 에어컨과 난방기, 공기정화기를 1대로
2. 에너지 절약
3. 공기정화 기능

1. 시공이 편리하다. 수직방식 신형
2. 실내온도, 습도, 공기질 등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국립 및 협력업체

문의: 955-0222
080-701-7117

중국어 출장강의

1. 수준에 맞는 개인별 맞춤
2. 전문강사
3. 시공이 편리하다. 수직방식 신형

중국 최대 사립학교

리틀차이나 中国語学院

2004-2006년 중국어 교육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문의: 233-9582